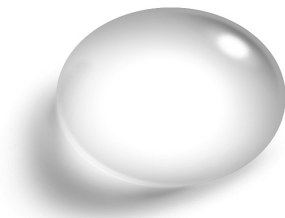


물(기능수)과 파동요법

정덕영(삼맛터 건강 미인 대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파동 장비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라디오파동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전류를 흘려주는 기기들입니다. 이 모든 파동기기를 두루 설명하고 잘 구분해주는 글입니다. 파동기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씁니다.(편집자 주)



몇 년 전 필자는 <지금여기>에 “파동음악과 생체 전자기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양자물리학의 기본전제인 “입자/파동 상보설”의 관점으로 인체 또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특히, 소리파동의 접근인 파동음악치유법을 소개한 것이었다.

양자역학으로 대변되는 현대물리학은 물질 우주의 구성을 “입자/파동 상보설”로 설명하는데, 이는 물질세계는 물체라고 하는 고정적인 실체인 입자 현상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의 확률인 파동현상 즉, 불확정된 가변적 실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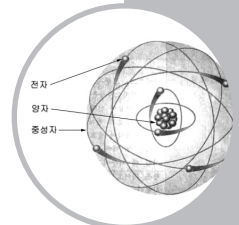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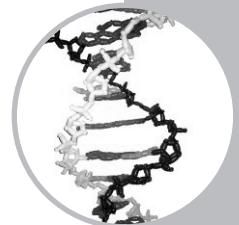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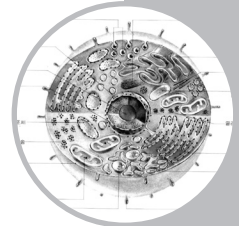
수 년의 공백기 동안 필자는 물리학의 입자론을 생명체에 투사시킨 분자생물학의 관점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메가비타민요법으로 알려진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분자교정학을 조금이나마 접해볼 수 있었다. 또한 파동치료 장비로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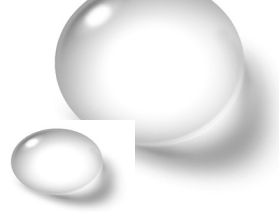
나 유명했던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Rife Frequency Generator)를 경험하고 임상하면서 나름대로 “입자/파동 상보설”을 인체와 질병의 치유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었다.

입자의 관점과 질병의 치유

인체에 있어서 질병이란 오장육부로 구성된 장기와 기타의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장기와 기관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세포, 세포는 본래 성질을 띠고 있는 최소 단위인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분자는 원자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세분되며,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소립자로 구성된다. 질병이란 어떠한 차원이든지 각각의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장기와 기관의 정상적인 작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장기와 기관을 구성하면서 그 속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세포를 이루는 분자일 것이다. 이러한 분자 단위의 접근은 라이너스 폴링(Linus Pauling) 박사에 의해서 체계화된 분자교정학으로 정리된다. 그는 인체의 면역력과 질병, 그리고 영양물질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1968년 “몸의 분자성분을 영양으로 조절하는 정신의학(Orthomolecular Psychiatr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분자교정학을 탄생시켜 노벨의학상을 받는다. 분자교





정의학이란 세포분자 레벨에서의 대사 기능 연구와 그 세포의 대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복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DNA)를 치유하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상세포로 유도하는 것이다. 정상세포란 영양 밸런스와 전기적 밸런스가 유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세포분자의 정상화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메가비타민요법과 미네랄 및 적절한 전기적 밸런스가 유지된 기능수요법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파동의 관점과 질병치유

파동의 개념 정의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보른에 의하면, 파동이란 “전자의 위치구조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있는 확률 함수”로 정의 된다. 이러한 파동은 어떠한 물질(질량)이 가진 물리량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양자(Quantum)라고 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이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1913년 원자행성모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양자물리학의 할아버지라 불리운 보어에 의하면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전자가 위치한 궤도에 따라 물리량(에너지)의 변화(기본단위=양자, Quantum)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전자가 불확정/비연속적으로 궤도를 이동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지어낸다. 즉, 고정된 실체가 아닌 가변적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의 위치 정보가 파동이며 양자역학에서의 파동은 “전자가 일정 궤도에 위치할 확률 정보”를 의미한다. 양자(파동)에너지라 함은 이러한 전자와 원자핵의 양성자가 척력과 인력(밀고 당김)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미세 전자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원자 속의 전자 위치 구조가 잘못되었다면 그 원자는 비정상적인 작용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분자와 세포, 장부와 기관은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각 신체를 구성하는 장부/기관 속에 있는 전자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 정보(파동)가 공명하고 상쇄하는 작용을 이용하여 몸을 진단하거나, 온전한 정보(파동)를 몸에 주입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방식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온전한 정보”란 건강한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속의 전자의 위치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세포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양자(파동)에너지인 세포의 미세에너지(전자기)장을 뜻한다. 포프(F. A. Popp)박사는 이를 생체정보(Bio-Information)이론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생체정보에 의하여 나타나는 생명체의 전기적 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고유한 에너지장을 생명장(Life Field)이라 부른다.

파동은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횡파)와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염파(종파),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파(종파) 등이 있다. 염파는 명상, 기도, 마이드 컨트롤, 강한 신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을 고치겠다(생각)는 간절함 마음(긍정적 감정)이 생각에너지(창조력)인 기(氣)의 형태로 몸의 생명장을 동조시켜 비정상적인 세포 속의 전자의 위치를 온전하게 조정하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공사들이 기 체크를 통하여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자의 위치 궤도가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하는 부적당한 생체전자기파(파동)가 기공사의 몸에 공명하여 일으키는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염파의 응용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 개연성이 약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계적인 전자기파의 개발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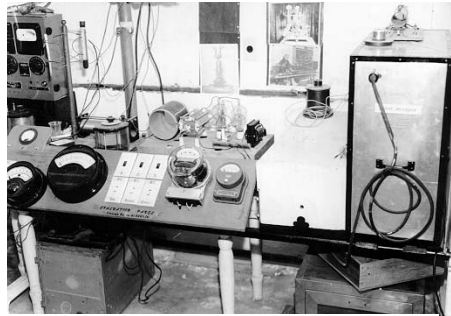
파동분석장비는 미국의 의학자 알버트 에이브람즈(Albert Abrams) 박사가

개발한 라디오닉스(Radionics) 장치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에이브람즈의 라디오닉스 장치(ERA : Electro-Reaction of Abrams)는 건강한 사람을 매개로 모든 생체 정보를 축적하였으나, 에이브람즈의 뒤를 이은 히에로니머스(T. G. Hiero-nymous)의 라디오닉스장치(1949. 9)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기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웨인스탁(Ronald J. Weinstock)에 의해 라디오닉스는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웨인스탁은 공명자장측정기를 통하여 각종 원소 및 인간의 기관과 조직의 파동을 감지하여 5~6천여가지의 파동 패턴을 코드화하였고, 이러한 코드를 출력해내는 기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MRA(Magnetic Resonance Analyzer, 공명자장분석기, 1989)이다. MRA는 파동을 수치화/그래프화하여 나타내었고 감정의 고유한 파동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일본에서는 1992년 “파동시대로의 서막”이라는 책을 효시로 MAX, MIRS, QRS, LFA, Biosens, PSI-1000 등의 파동기기가 등장한다.

라디오닉스 계열과는 별도로 또 다른 파동장비가 등장하는데 이는 1930년대 미국의 이단적인 천재 라이프(Royal Raymond Rife) 박사가 개발한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Rife Frequency Generator; Rife Machine)이다. 라이프박사는 병의 원인을 충(germs: 기생충,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해균)에 있다고 믿는 충설의 신봉자이다. 그는 인체에 유해한 충의 형태장을 그가 직접 만든 프리즘방식의 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를 파괴하는 파동주파수와 장부 및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파수를 찾아내었고, 이러한 파동주파수를 직접 인체에 주사시키는 파동치료기기를 제작하여 미국 의료계에 일대 파문을 던진다. “만병통치(The Cure of All Diseases)”를 저술한 홀다 클락(Hulda Regehr Clark) 박사의 재퍼(Japper) 또한 라이프 머신 계열의 파동치료기기가 볼 수 있다.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Rife Frequency Gene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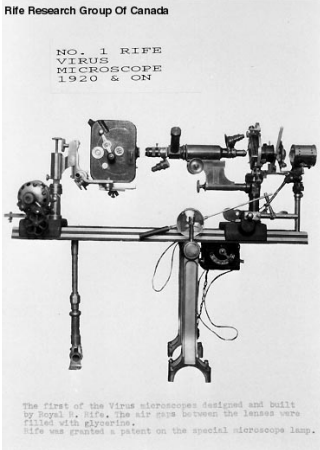
의사이사 발명가인 라이프 박사는 1920년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용 현미경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1920년 세계 최초의 암 바이러스를 발견한다. 또한 이를 배양하여 2만 번 이상 실패한 끝에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는 Crypto-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

cides primordiales라 명명한 이 암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400마리의 실험용 쥐 모두 암에 걸리도록 하는 놀라운 연구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 후 그는 이 암바이러스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전자기에너지를 가진 주파수를 발견하고, 이를 증폭해서 인체에 직접 전사시키는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Rife Frequency Generator)를 개발하여 암바이러스를 파괴하는데 성공한다. 1931년 대중과학(Popular Science)에 라이프 박사의 천재성이 보도가 된 후 1931년 11월 미국의 저명한 의사 44명으로부터 “The End of All Diseases”란 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모두 죽여버리므로 죽은 시체나 조직 파편만 관찰할 수 있는 반면, 라이프 박사의 현미경은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파장대의 스펙트럼을 이용한 프리즘방식의) 획기적인 현미경(6만배 확대)이었다.

그후, 1934년 여름, SMRC(Special Medical Research Committee)에서 지정한 남가주 대학교에서 파사데나 병원의 말기암환자 16명에 대한 희대(稀代)의 임상실험 결과, 3개월 내에 14명이 완치되었고 나머지 2명도 4주 내에 완치되는



라이프 현미경

를 “생체활성 주파수(Bio-Active Frequency)”라 칭했다. 평생에 그는 14개의 권위있는 저명한 상과 하이델베르크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실험의 성공과 수많은 공개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계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남가주 AMA(미국 의사협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라이프의 실험연구에 참여했던 밀뱅크 존슨(Milbank Johnson) 박사는 당시 라이프 기계의 압 치료 효과에 관한 성공 실화를 신문에 발표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신문과의 인터뷰를 하루 앞둔 그날 저녁 아무도 모르게 약물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라이프 박사는 SMRC의 조사와 감독하에 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도 파동(에너지)치유법(energy medicine)을 이용하여 치료하는데 성공한다. 그 후 라이프 박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체든, 생물체든, 병원균이든 간에 고유의 분자진동패턴(Molecular Oscillation Patterns)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로 유해한 미생물을 공격하거나 병증세포를 회복시킴으로써 어떠한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주파수



1938년 5월 6일(금) Evening Tribune (San Diego, California)지



중독으로 1944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또한 발표 예정이었던 그의 연구 자료와 발표문은 모조리 압수당해 폐기 처분되었으며, 연구소(Burnett Lab)는 원인 모를 화재에 불타고 말았다. 라이프 박사의 세기적인 발명품인 프리즘 현미경의 부품 6,000개 중 5,682 조각이 도난을 당하는 등 그의 흔적은 사라져갔다.

1971년 라이프의 사후, 많은 과학자들이 라이프 머신(라이프 주파수 발생기)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성공을 이루었고, 1987년 배리 린스(Barry L. Lynes)에 의해서 라이프 박사의 업적이 책으로 출판된 이래로 수많은 후학들에 의해서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모든 이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환우들 곁에. 

라이프 박사 관련 대표 웹사이트

- www.royalrife.com
- www.rife.org
- www.lymebook.com (Rife Machine으로 라임병을 치료한 사 출판)
- www.rifeconference.com (매년 열리는 Rife 학술대회 자료 안내)
- www.energywellness.co.nz/Royal%20Rife.htm (Rife박사 자료 안내)
- www.rense.com/rrr/rrr.html (Rife박사 자료 안내)
- 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410753409/103-6501197-1117437?v=glance (The End of All Diseases 안내)

저자 | **정덕영** | 성균관대 통계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유니시스 코리아 근무. 아보타 마스터이며 성분분석가, 파동음악 '살맛터의 파동음악', '위성볼텍스' 등을 제작. 현재 살맛터 건강 미인 대표.